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div>보도자료</div>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배포일자	2024년 4월 19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복지지원팀장 이정화 ☎ 440-1551 • 담당자 송영미 ☎ 440-155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 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년간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
-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백만 원, 고립은둔 청년에 마음회복 지원 등 -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신(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국비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우선 위탁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가족돌봄청년이 돌보는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돌봄대상자 간병 교육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마음건강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청년들만의 안식처를 제공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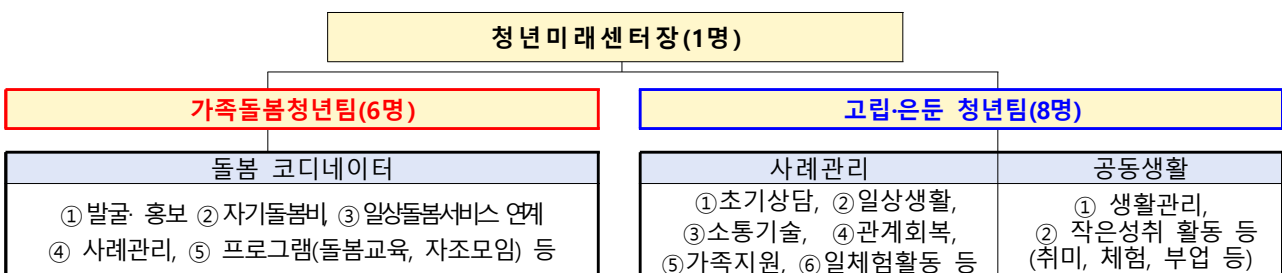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시범사업 공모 선정

□ 공모선정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 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24.4월 ~ '25.12월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 (선정시도) 4개 광역 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
- (사업내용) (가칭)청년미래센터, 권역별 취약청년 전담 공공 허브 역할
 - (가족돌봄청년) 발굴·사례관리/자기돌봄비 지급(연200만원/240명)
 - (고립·은둔청년) 안식처, 공동활동, 회복 및 자립 지원, 가족지원
 - ①조기발굴체계(온라인 자기진단, 129콜 도움창구) 마련, ②전담기관-인력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4년 예산) 1,415백만원
 - (사업비/국비보조) 1,215백만원(국851(70%), 시364(30%))
 - (설치비/시비) 200백만원(100%)

□ 수행계획

- (수행기관/공간) 인천사회서비스원 / 인천IT타워 10층 274㎡(예정)
- (센터운영모델) 가족돌봄, 고립·은둔 통합형/
- (인력채용) 총21명[자체 15명*, 중앙 6명(청년인턴) 파견] *계약직(시범기간)



□ 향후일정

- 수행기관 업무협약 : 2024. 5.
- 전담센터 인력 채용 : 2024. 5.~
- 전담센터 공간 설치(리모델링) : 2024. 7.